

미시마 유키오 『한여름의 죽음』에서 보는 ‘분노’

황 진*
jinisaku@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풍경 속의 ‘분노’ |
| 2. 한여름의 ‘분노’ | 4. 나오며 |

주제어: 분노(anger), 비극(tragedy), 여름(summer), 바다(sea), 죽음(death), 태양광선(sun rays), 망각(oblivion)

1. 들어가며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 이하 ‘미시마’)의 『한여름의 죽음(真夏の死)』은 1952년 9월호 『신초(新潮)』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 2월에 간행된 동명의 단편소설집에 수록되었다.

미시마는 1951년 12월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의 출판국장 가지 류이치(嘉治隆一)의 도움을 받아 아사히신문 특별통신원의 자격으로 첫 번째 세계일주 여행을 떠났는데, 요코하마항을 출발하여 하와이와 미국, 브라질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갔고 스위스와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1952년 5월에 귀국한다. 『한여름의 죽음』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미시마의 복귀작으로 당시의 평가도 높고 미시마 문학의 일시기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소설은 전후 일본의 중산층을 대변하는 이쿠타가(生田家)에 찾아든 불행한 사건과 그 극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미시마는 작품 해설에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름 한철을 보낸 이즈(伊豆)의 이마이하마(今井浜)에서 들은 사건을 골자로 하여 일반적인 소설과는 반대로 비극의 정점을 프롤로그에 두고 그 사건의 반응과 마침내 그것을 망각 속에 잊어가는 경과를 작품 속에 담으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¹⁾

『한여름의 죽음』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1) 三島由紀夫(1953)『三島由紀夫作品集4・あとがき』新潮社, p.661

먼저 니시모토 마사카쓰(西本匡克)는 이 소설의 주목적은 “불행한 어머니의 심리가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가 하는 도덕적인 추구”에 있는 듯하지만, 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불행의 대상을 바라는 에고이즘”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²⁾ 니부야 다카시(丹生谷貴志)는 “아이의 역사라는 평범한 사건이 어머니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비극으로 생성되어 가는가”하는 메커니즘을 그리고 있다고 논하였다.³⁾ 이들 연구는 주인공 도모코의 내부에서 비극이 생성되고 해소되어 가는 경과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구리스 마히토(栗栖真人)는 “미시마 자신의 반생, 그 ‘전쟁시와 전후의 심리’를 암유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으며,⁴⁾ 니시모토 마사카쓰는 “고대 로마의 패허와 지중해 안에 일본의 패전 이미지를 환영화”한 작품으로,⁵⁾ “여름, 바다, 죽음이 지적으로 구성되어 강렬한 패전의 이미지가 짙은 색채로 배어나오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는데,⁶⁾ 소설 속 풍경을 이루는 여름과 분노, 바다와 죽음 등의 이미지를 작가 미시마의 전후의식과 관련지어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여름의 죽음』 연구는 이쿠타 일가의 비극성과 도모코의 내부 심리의 문제, 그리고 작자 미시마의 전후의식을 중심으로 논하여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작품 속 ‘분노’의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비극의 기점인 사건 당일의 A해변과 2년 뒤 다시 찾은 A해변의 풍경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내 ‘비극’의 생성에 ‘분노’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규명할 것이며, 나아가 작품 서두에 오는 에피그래프와 소설 말미의 작가의 부기에 주목하여 작자의 의도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여름의 ‘분노’

도쿄(東京) 덴엔초후(田園調布)의 고급주택가에 살고 있는 이쿠타기는 전후 일본의 전형적인 엘리트 가정이다. 지방 권세가의 차남으로 태어난 가장 마사루(勝)는 외국어대학을 졸업했고 전쟁 이전부터 미국계 상사에 근무하여 영어도 매우 유창하다. 전쟁 중에는 정보국에

2) 西本匡克(1976) 『『真夏の死』の世界-敗戦のイメージを中心に-』『人文論究』関西学院大学人文学会, p.70

3) 丹生谷貴志(1993) 「ポップス(『真夏の死』「獣の戯れ」「午後の曳航」)」『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學燈社, p.26

4) 栗栖真人(1978) 「『真夏の死』-その構成と創作動機について-」『語文』日本大学国文学会, p.32

5) 西本匡克(1976) 앞의 책, p.67

6) 西本匡克(1976) 앞의 책, p.74

근무하며 병역을 면제받았고 전쟁 후에는 미국계 자동차회사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 도모코(朝子) 역시 도쿄의 좋은 집안 출신으로 슬하에 여섯 살인 장남 기요오(清雄)와 다섯 살인 장녀 게이코(啓子), 세 살인 가쓰오(克雄) 이렇게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고향인 가나자와(金沢)에서 상경하여 육아를 돕고 있는 마사루의 여동생 야스에(安枝)를 포함하면 총 여섯 명의 가족이다.

어느 여름, 마사루를 제외한 일가는 이즈반도(伊豆半島)의 A해변으로 피서를 떠났다. 도모코는 료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야스오와 아이들은 해변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이안류에 휩쓸려서 물장난을 치고 있던 기요오와 게이코가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설상가상 아이들을 구하려 물속으로 뛰어들던 야스에마저 때마침 덮쳐온 파도에 부딪쳐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만다.

이 소설은 한낱한시에 일가 여섯 중 셋이나 사망하는 불합리한 사건과 ‘비극’ 앞에서 수동적 일 수밖에 없는 인간 심리를 그리고 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2.1 해변의 ‘분노’

다음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해변에 앉아 모래장난을 치고 있던 야스오의 눈에 비친 해변의 풍경이다.

야스오에는 손을 뒤로 짚고 다리는 쪽 뻗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엄청난 크기의 적란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그 장중한 고요함은 너무도 깊어 주위의 술렁임도 파도 소리도 구름의 빛나는 장엄한 침묵 속에 빨려 들어갈 듯했다.

安枝は手をうしろに支へ、足はのびのびとのぼして沖を眺めた。積亂雲が夥しく湧いてゐる。そのいかめしい静けさは限りなく、あたりのざわめきも波のひびきも、雲のかがやく莊嚴な沈黙の中に吸ひとられてしまふやうに思はれる。(p.399)⁷⁾

A해변의 하늘에는 엄청난 규모의 적란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름의 형상은 장중하고 또 고요하여 마치 주위의 모든 것들은 그 구름 장엄한 침묵 속에 빨려 들어갈 듯하였다.

7) 본고에 실린 텍스트의 인용은 1973년 신초사(新潮社)에서 출판한 『三島由紀夫全集第六卷』에 의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페이지를 나타낸다. 또한 한국어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다. 이하 같음.

그리고 그 하늘 구름 풍경 밑 해변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여름은 절정이었다. 격렬한 태양광선에는 분노가 가득 차있었다.

夏はたけなはである。烈しい太陽光線にはほとんど憤怒があつた。

(p.400)

A해변은 타는 듯한 무더운 여름의 절정이었다. 그리고 해변에는 격렬한 태양광선이 내리쬐이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격렬한 태양광선에는 분노가 가득 차있었다”라는 문장이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정의 하나이다. 물리적인 위협에 처하거나 자존심이나 명예에 상처를 입었을 때, 또는 부당한 취급이나 모욕감을 당했을 때 인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다시 말해 분하여 화를 내거나 화가 폭발하는 것을 ‘분노’라고 한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분노’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풍경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격렬한 태양광선은 폭발하기 직전의 ‘분노’를 표상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와 같은 긴장감이 한여름의 격렬한 태양광선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A해변의 격렬한 태양광선 밑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격렬한 ‘분노’의 재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한여름의 ‘분노’는 일가의 ‘비극’으로 현실이 되었다. 기요오와 게이코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야스에마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으므로, A해변의 여름을 가득 채운 “격렬한 태양광선” 속의 “분노”는 ‘비극’의 도래를 예고한 풍경묘사였던 셈이다.

2.2 마사루의 ‘분노’

여름의 절정, 격렬한 태양광선으로 표상된 ‘분노’는 ‘비극’을 접한 마사루와 도모코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도모코가 불행한 소식이라며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보를 친 것은 남편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외에 위치한 주택지의 관습상, 우체국에 도착한 전문은 때마침 회사에 출근하려던 마사루에게 전화로 전해졌다. 회사로부터의 용무라고 생각한 마사루는 가벼운 기분으로 거실의 탁상전화를 귀에 가져갔다.

“A해변으로부터 급한 정보입니다”라는 우체국 여직원의 목소리에 불안해져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전문을 읽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야스에 사망 기요오 게이코 행방불명 도모코.”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두 번째도 또한 “야스에 사망 기요오 게이코 행방불명.”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아서 마사루는 초조

해졌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해고장을 갑자기 통보받은 듯한 분노를 느꼈다. 전화를 끊자 그의 가슴은 노여움으로 들끓었다.

朝子が凶報のために電話を使わず電報に據つたのは、良人と應答するのを憚つたからである。しかし、郊外の住宅地の習慣で、郵便局へ着いた電文は、丁度会社へ出かけようとしてゐた勝のところへ、電話でもつて傳へられた。社用だと考へて、勝は輕ひ気持ちで茶の間の卓上電話を耳に宛てた。

「A濱から至急報です」という郵便局員の女の声で、不安な胸さわぎははじめてした。「電文をお読みします。いいですか? ヤスエシス、キヨオケイコユクエフメイ、トモコ」

「もう一度読んで下さい」

二度目もまた、それが「安枝死す、清雄啓子行方不明」としかきこえないので、勝は焦慮した。身に何の覚えもないのに突如として解雇状をつきつけられたやうな憤怒を感じた。電話を切ると、彼の胸は怒りのためにさわいだ。

(pp.407-408)

사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마사루는 우체국 전보를 통해 A해변에서 일어난 일가의 ‘비극’을 전해 듣는다. 그런데 사고 소식을 접한 마사루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두 아이와 여동생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픈 감정보다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가슴이 들끓는다. 마치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해고장을 건네받은 듯한 격한 ‘분노’에 몸을 떨었던 것이다.

마사루의 ‘분노’는 “자신은 배제된 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사건이 발생했고 자신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분노’이며, 그 근처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발심리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마사루의 일련의 행동에서는 그의 또 다른 일면이 엿보인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마사루는 바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결근을 통보하고, 평정심을 잃은 본인이 A해변까지 직접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기차와 택시로 이동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사건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필요하기 마련이라며 현금을 준비하여 집을 나서고, A해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는 아내를 만났을 때 맨 처음 취해야할 태도에 대해 고민한다. 마사루라는 남자가 얼마나 상황판단이 빠르고 냉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A해변의 사고소식을 전해 듣고 보이는 마사루의 격한 ‘분노’는 평소의 그답지 않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일가를 책임지는 가정의 심리로서도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화자는 “부자연스러운 태도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라 부연한다. 갑작스런 ‘비극’ 앞에서 자연스러운 태도란 있을 수 없으며, 비밀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부자연스

러움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3 도모코의 ‘분노’

작품 속을 배회하는 ‘분노’의 메커니즘은 아내 도모코의 심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삶이 그러하듯 죽음에도 일종의 사무적인 수속이 필요하다. 장례식 기간 동안 이쿠타 일가는 인습을 초월한 불행 앞에서도 인습에 따라 행동해야만 했다. 마사루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느라 슬퍼할 여유마저 없었고, 도모코는 두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달리 슬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인간 감정의 빈약함에 절망하고 있었다.

도모코는 이 불행이 자신에게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두 아이를 잃은 자신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슬픔을 맞본 사람은 어떤 비도덕적인 권리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골에서 상경한 시부모 앞에서 두 아이와 야스에의 죽음에 대해 사죄의 말을 반복해야만 했고 이런 상황을 도저히 심정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초조함과 노여움으로 절망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위의 노인들로부터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들을 때면 격렬하게 저항하며 ‘분노’했던 것이다.

도모코는 이런 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힘을 냈다.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라고 위로하던 노인들의 말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때의 ‘분노’를 생각해 내려고 노력했다. 왜 그렇게 저항하였고 왜 그렇게 화를 냈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분명 그때 도모코가 두려워했던 것은 체념이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죽은 이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회한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이런저런 변명은 부질없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이가 죽은 이에게 해야 할 마지막 봉사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죽음을 인간적인 사건, 인간적인 연극의 범위 안에 붙들어 두고 싶은 것이다.

朝子はこんな心弱りが芽生えるにつけ、力をふるひおこして、「何事も天命です」と慰める老人たちの言葉に、はげしく逆らつたときの憤怒を思ひ出さうと力めいた。何故ああして逆らひ、何故ああして怒つたかを省みた。多分あのとき、朝子が怖れたのは諦念であつた。われわれには死者に対してまだなすべき多くのことが残つてゐる。悔恨は愚行であり、ああもできた、かうも出来たと思ひ煩らふのは詮ないことであるが、それは死者に対する最後の人力の奉仕でもある。われわれは少しでも永いあひだ、死を人間的な事件、人間的な劇の範圍に引止めておきたいと希ふのである。

(p.422)

도모코는 두 아이의 죽음을 망각의 작용 속에 내맡기기보다는 오랫동안 “인간적인 사건” “인간적인 연극”의 범위 안에 붙들어 두고 싶었다. 하지만 도모코의 또 다른 무의식은 불행한 기억에서 벗어나 서서히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었고, 이런 서로 다른 두 의지가 내부에서 격렬히 대립할 때마다 도모코는 사고 직후에 들었던 주위로부터의 위로를 떠올리며 ‘분노’했던 것이다.

도모코의 ‘분노’는 남편 마사루의 ‘분노’와는 결을 달리한다.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 “불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나아가 “자신의 불행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만, 이런 불만이 “슬픔의 가장 에고이스틱한 감정”으로 표출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여름의 절정에서 생성된 ‘분노’는 A해변의 불합리한 사건으로 이어졌고, ‘비극’은 가족 구성원의 내부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키워졌다. 다음은 A해변의 풍경 속에 내재된 ‘분노’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 풍경 속의 ‘분노’

장례 후 49제가 지나고 다마(多摩) 묘지에 가족묘를 만들어 세 사람을 합장했다. 하지만 야스에를 간호하는 네 시간 동안 두 아이의 죽음을 알아채지도 직감하지도 못했다는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은 도모코의 슬픔을 점점 키워만 갔고, 마사루는 아내의 비탄에서 어떤 특권을 감지하고 고독에 빠져들었다.

슬픔은 가장 에고이스틱한 감정이다. 슬픔이 에고이스틱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진 사람의 감정표출은 에고이스틱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도모코는 살아있는 것에 잔혹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 잔혹한 생의 실감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깊은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가는 서서히 불행한 기억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었다. 특히 겨울이 한창일 무렵, 도모코에게 임신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자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인체의 건강한 방어기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였고, 망각은 당연한 권리처럼 부부의 마음에 스며 들었다. 그 다음해 늦은 여름, 네 번째 아이 모모코(桃子)가 태어났다. 죽은 아이들의 공백을 새로 태어난 아이가 메워줌으로 비로소 사건 이후 일가를 뒤덮고 있던 ‘비극’의 그늘은 걷혔다.

A해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2년여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도모코는 A해변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서 마사루를 놀라게 했다.

다시 찾은 A해변은 ‘미국’의 그날처럼 평화롭기만 하다. 정원의 잔디는 오늘도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타오르고, 콜타르칠을 한 그네와 고리던지기를 하던 놀이기구도 그대로이다. 심지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업어 온 야스에의 시체가 누워있던 정원 한쪽 나무그늘마저 그날의 풍경을 닮았다.

마사루는 그 해 여름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평을 늘어놓지만 도모코는 아무 말이 없다. 매미 울음소리 속에 침묵하던 마사루가 가쓰오의 손을 잡고 해변으로 향한다. 모모코를 안은 도모코도 말없이 뒤를 따른다. 일가는 울타리 문을 나와 술숲을 지나 해변에 들어섰다.

여름의 절정, 오늘도 바다에는 엄청난 양의 구름이 떠있다. 그리고 그 구름 위 파란 하늘에는 빗자루로 쓸고 간 뒤에 남은 흔적처럼 경쾌한 구름이 활달하게 뻗어서 수평선 위에 엉켜있는 울적한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그 구름의 바로 밑에서 해변을 향해 쪽 펼쳐져 있다. 네 사람은 바다를 향해 나란히 섰다.

그런데 일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낯설지 않다.

엄청난 크기의 적란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그 장중한 고요함은 너무도 깊어 주위의 술렁임도 파도 소리도 구름의 빛나는 장엄한 침묵 속에 빨려 들어갈 듯했다.

여름은 절정이었다. 격렬한 태양광선에는 분노가 가득 차있었다.

積亂雲が夥しく湧いてゐる。そのいかめしい静けさは限りなく、あたりのざわめきも波のひびきも、雲のかがやく莊嚴な沈黙の中に吸ひとられてしまふやうに思はれる。

夏はたけなはである。烈しい太陽光線にはほとんど憤怒があつた。

(pp.399-400)

바다에는 오늘도 엄청난 양의 여름 구름이 떠 있다. 구름은 구름위에 누적되어 있다. 이정도로 무거운 빛이 넘쳐나는 장엄한 질량이 하늘 위에 떠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상부의 파란 하늘에는 빗자루로 쓸고 난 뒤의 흔적과도 같은 경쾌한 구름이 활달하게 뻗어 수평선 위에 엉켜있는 이 울적한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다. 하부의 뭉게구름은 그 무엇인가를 견디고 있다. 빛과 그림자의 과잉을 형태로 덮어서 이를테면 검은 부정형의 정육을 밝은 음악의 건축적인 의지로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沖には今日も夥しい夏雲がある。雲は雲の上に累積してゐる。これほどの重い光りに満ちた莊嚴な質量が、空中に浮んでゐるのが異様に思はれる。その上部の青い空には、箒で掃いたあとのやうな軽やかな雲が闊達に延び、水平線上にわだかまつてゐるこの鬱積した雲を瞰下ろしてゐる。下部の積雲は何ものかに耐へてゐる光りと影の過剰を形態で覆ひ、いはば暗い不定形な情欲を明るい音樂の建築的な意志でもつて引締めてゐるやうに思はれる。

(p.449)

시간적으로 2년의 시차가 있지만, ‘비극’이 일어났던 그날과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이날의 바다 풍경은 매우 유사하다. 여름의 절정, 그리고 A해변이라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이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런데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중첩되는 그 속에는 미묘하지만 다름이 존재한다.

2년 전 그날처럼 해변에는 여름 구름이 떠있다. 그날의 구름이 장중하고 고요하고 장엄한 구름이라면, 이날의 구름은 무거운 빛이 넘쳐나는 장엄한 질량의 구름이다. 매우 흡사한 하늘 풍경이다.

그 다음의 묘사에서부터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사건 당일 바다 위에 떠있던 구름은 장중하고 고요하여 마치 주위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일 것 같은 빛나는 구름이었다. 반면 다시 찾은 A해변에 떠있는 구름은 “그 무엇인가를 건디고” “빛과 그림자의 과잉을 형태로 덮어서 이를테면 검은 부정형의 정육을 밝은 음악의 건축적인 의지로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그날의 구름이 주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격렬한 태양광선 속 제어할 수 없는 ‘분노’를 표상하는 적란운이었다면, 이날의 구름은 밝은 음악의 건축적인 의지에 의해 검은 부정형의 정육이 억제되고 있는 형태, 즉 팽팽한 대립 구조 속에서 적정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통제되는 듯한 적운인 것이다. 적란운은 천둥과 번개와 소낙비를 동반하는 썸비구름이지만 적운은 숨털처럼 몽실몽실한 뭉게구름이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날의 해변에는 존재했고 이날의 해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노’의 메커니즘이다. 2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A해변을 뜨겁게 달구던 격렬한 태양광선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있다. 그 뜨거운 태양광선 아래 기요오와 게이코, 야스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따라서 격렬한 태양광선 속의 ‘분노’는 ‘비극’을 초래하는 예고풍경으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찾은 A해변은 여전히 여름의 절정이고, 하늘에는 엄청난 구름이 피어오르고, 뜨거운 태양광선이 해변을 달구고 있다. 하지만 격렬한 태양광선의 ‘분노’가 넘쳐나던 2년 전의 해변과는 다르게 이날의 A해변의 풍경 속에는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해변이 더 이상 ‘비극’의 공간이 아님을 변화한 해변풍경이 암시하고 있다.

2년을 전후한 A해변의 미묘하지만 두드러지는 풍경의 차이는 뒤에 이어지는 소설의 엔딩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

A해변을 다시 찾은 이쿠타 일가는 수평선을 향해 바닷가에 나란히 섰다.

마사루는 옆에 있는 도모코를 보았다.

도모코는 물끄러미 바다를 보고 있다.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나부끼고 강한 태양광선에 지친 기색도 없다. 눈은 물기를 머금고 상당히 늠름해 보인다. 입은 고집스럽게 다물고 있다. 그 품에는 작은 밀짚모자를 쓴 한 살 배기 모모코가 안겨 있다.

마사루는 이런 아내의 옆얼굴을 몇 번인가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아내는 때때로 마음을 놓아버린 듯이 이런 표정을 짓는다. 그것은 기다리는 표정이다.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표정이다.

‘당신,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거야.’

마사루는 그렇게 가볍게 물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순간, 묻지 않아도 아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에게는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마사루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 잡고 있던 가쓰오의 손을 세게 쥐었다.

勝はかたはらの朝子を見た。

朝子はじつと海を見てゐる。髪は海風になびき、強い太陽光線にひるんでゐるけはひもない。目は潤みを帯びて、ほとんど凛々しく見える。口は頑なに結ばれてゐる。その腕には小さな麦藁帽子をかぶつた一歳の桃子を擁している。

勝はこういふ妻の横顔を何度か見たことがあるやうに思つた。あの事件があつて以来、妻は時々放心してゐるやうなこんな表情をする。それは待つてゐる表情である。何事かを待つてゐる表情である。

『お前は今、一体何を待つてゐるのだい』

勝はさう気軽に訊こうと思つた。しかしその言葉が口から出ない。その瞬間、訊かないでも、妻が何を待つてゐるか、彼にはわかるやうな気がしたのである。

勝は悄然として、つないでゐた克雄の手を強く握つた。

(pp.449-450)

도모코는 품에 한 살 배기 모모코를 안고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말없이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다. 눈에 물기를 머금고 늠름히 서 있는 도모코의 모습은 비장하다. 마사루는 예전에도 이런 아내의 모습을 몇 번인가 본 것 같아서 가볍게 물으려고 한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일순 아내의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정체를 직감한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서 가쓰오의 손을 꼭 쥐었다.

마사루는 아내의 이 끈질긴 책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었다.

勝は妻のこのしつこい責任感が何を意味するかを知つてゐた。彼女の待つてゐるものは或る種の刑罰である。(p.417)

일가는 미치지도 않았고 자살자가 나오지도 않았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지냈다. 그 정도로 처참했던 사건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끝난 것은 분명했다. 그러자 도모코는 지루해졌다. 무슨 일인가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다.

一家は氣も狂はなければ、自殺者も出さなかつた。病氣にさへ罹らずにすんだ。あれだけの悲惨事がほとんど影響を及ぼさず、何も起らずにすんだことはほぼ確實であつた。すると朝子は退屈した。何事かを待つやうになつたのである。(pp.430-431)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마사루가 기억하는 도모코의 기다림은 두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책임감에서 오는 “어떤 종류의 형벌”이었다. 하지만 바다를 향해 선 도모코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는 마사루의 반응을 보면, 도모코의 기다리는 것의 정체가 “어떤 종류의 형벌”은 아님이 분명하다.

도모코에게 A해변은 두 아이를 잃은 ‘비극’의 공간이며 절망의 공간이며 죽음의 공간이었다. 사건 이후 비탄에 젖은 도모코는 불행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 방황을 했다. 이 기간에 보여준 도모코의 소극적인 성격에서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다고는 하지만 한평생 찾지 않을 거라던 A해변을 다시 방문한 것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A해변에 다시 와야만 했던 필연적인 의지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2년 전 A해변에서 일어났던 일가의 ‘비극’과 도모코가 A해변에 다시 찾아와 바다를 조망하며 기다리는 것의 정체 사이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텍스트 속을 배회하는 ‘망각’의 메커니즘이 A해변에 일어났던 사건의 ‘비극성’을 치유할 수 있었다면, 도모코가 다시금 A해변을 찾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도모코가 A해변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A해변의 ‘비극’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텍스트 내부에 그 ‘비극’과 관련된 또 다른 해결되지 못한 다른 과제가 잠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모코의 내부에서는 두 아이를 잃은 ‘슬픔’과 ‘절망’이 만들어내는 ‘비극성’의 문제와, 자아를 전율케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각성한 ‘실존’의 문제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이상의 맥락에서 보자면 도모코가 ‘비극’의 공간인 A해변을 다시 찾은 필연적인 이유는

8) 황진(2014) 「미시마 유키오의 『한여름의 죽음』론- 도모코의 ‘실존’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제49집, pp.420-422

2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가의 불합리한 사건을 직시함으로 자기 내부의 ‘비극’과 마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한여름의 죽음』은 ‘비극’을 경험하고 ‘비극’에서 벗어나는 일가의 모습을 그리는 한편, ‘비극’의 원점인 A해변에 다시 찾아와 비장하게 바다를 향해 선 도모코의 옆얼굴에서는 ‘비극’을 통한, 또는 ‘비극’을 넘어서는 텍스트의 확장성이 감지된다.

이 소설의 서두에는 “夏の豪華な真盛の間には、われらはより深く死に動かされる。”라는 에피그래프가 붙어있다. “여름의 화려한 절정에서 우리들은 보다 깊이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이 문장은 프랑스의 시인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의 『인공낙원(Le Paradis Artificiels, 1860)』에서 가져온 구절인데 작자의 의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극’이 일어난 당일의 A해변은 여름의 절정이었다. 바다 위 하늘에는 엄청난 질량의 적란운이 떠있었고 해변을 달구는 뜨거운 태양광선에는 ‘분노’가 가득 차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 아래서 일가 여섯 중 셋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 중에 팽팽히 부풀어 오른 ‘분노’는 이쿠타가의 ‘비극’으로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비극’을 예고하는 에피그래프와 함께 텍스트 말미에 명기된 “- 一九五二、八、一五 - 三島由紀夫”라는 부기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작자의 존재를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 작품 해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8월 15일’은 1945년의 그날을 연상하게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정부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날을 패전일로 기억한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날이었다. 여름의 절정이던 그날의 공기 역시 사건 당일 A해변의 풍경처럼 ‘분노’로 가득 차있었을 것이다. 이쿠타가의 불합리한 ‘비극’은 유난히 무더웠던 그날의 기억과 중첩된다. 격렬한 태양광선과 그 속에 가득 찬 ‘분노’, 그리고 ‘비극’에서 일본 패전일의 팽팽한 긴장감과 무거운 공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니시모토 마사카쓰는 “여름, 바다, 죽음이 지적으로 구성되어 강렬한 패전의 이미지가 짙은 색채로 배어나오는 작품으로 여기에서 작자 미시마의 전후는 끝이 났다”⁹⁾고 『한여름의 죽음』

9) 西本匡克(1976) 앞의 책, p.74

에 대해 논하였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도모코에게서 작자 미시마의 페르소나를 떠올린다면 다른 견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시마가 종전을 맞은 것은 만 20세가 되던 해였다. 입영통지를 받은 미시마는 1945년 2월 6일 호고현(兵庫県) 도미아иму라(富合村)에서 입대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군의로부터 폐침윤(肺浸潤) 진단을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후일 당시의 입대검사서에서 오진이 있었고 그 부대의 병사들이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대부분이 사망하고 전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미시마는 그때를 떠올리며 전쟁에 참여해서 마땅히 죽었어야만 했다고 술취했다고 한다.

도모코는 두 아이는 죽고 자신만 살아있다는 현실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온 몸을 전율케 하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면 잔혹한 생의 실감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 살아남은 자의 가장 예고이스틱한 감정으로서의 슬픔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텍스트의 결말은 여름의 절정이던 A해변을 다시 찾아와 2년 전의 ‘비극’을 직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도모코가 ‘비극’의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듯이 미시마 역시 전쟁을 직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종전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제1차 세계일주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돌아온 이 시점이야말로, 다시금 자기 내부의 문제로서 종전과 전후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는 호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루어 볼 때 『한여름의 죽음』은 미시마 문학에서 전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황진(2014) 「미시마 유키오의 『한여름의 죽음』론-도모코의 ‘실존’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9집, pp.420-422
- 栗栖真人(1978) 「『真夏の死』-その構成と創作動機について」 『語文』 日本大学国文学会, pp.26-35
- 丹生谷貴志(1993) 「ポップス(『真夏の死』『獣の戯れ』『午後の曳航』)」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学灯社, pp.24-27
- 西本匡克(1976) 「『真夏の死』の世界-敗戦のイメージを中心に-」 『人文論究』 関西学院大学人文学会, pp.66-75
- 三島由紀夫(1973) 『三島由紀夫全集第六巻』 新潮社, pp.420-422
- _____ (1953) 『三島由紀夫作品集4・あとがき』 新潮社, p.661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08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要旨>

미시마 유키오 『한여름의 죽음』에서 보는 ‘분노’

황 진

‘비극’이 일어난 당일의 A해변은 여름의 절정이었다. 바다 위 하늘에는 엄청난 질량의 적란운이 떠있었고 해변을 달구는 뜨거운 태양광선에는 ‘분노’가 가득 차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 아래서 일가 여섯 중 셋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 중에 팽팽히 부풀어 오른 ‘분노’는 이쿠타가의 ‘비극’으로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텍스트의 결말은 도모코가 여름의 절정이던 A해변을 다시 찾아와 바다를 향해 서서 2년 전의 ‘비극’을 직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도모코가 ‘비극’의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듯이 미시마 역시 전쟁을 직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종전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제1차 세계일주 여행을 통해 건문을 넓히고 돌아온 이 시점에서 다시금 자기 내부의 문제로 종전과 전후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한여름의 죽음』은 미시마 문학에서 전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The anger in Mishima Yukio's "Death in Midsummer"

Huang, Jin

A beach on the day of 'tragedy' was midsummer. There were many clouds floating in the sky above the sea, and the hot sun rays were filled with 'anger'. And there was a 'tragedy' in which three of six family members died under the landscape. The 'rage' that swelled in the hot air of the middle summer became a reality as a 'tragedy'.

The ending of the text is that Tomoko comes back to A beach in summer and stays facing the sea and faces a 'tragedy' two years ago. Just as it took two years for Tomoko to return to the origin of the tragedy, Mishima also needed time to face the war. At some point in time after the war ended, and at the time of the first round trip around the world, I had the opportunity to face again, before and after the war with my own problems. Therefore, the death of Mishima in the summer season should be regarded as a monumental work to announce the beginning of postwar period in Mishima literature.